

본사 전 직원 대상 ‘법정 의무교육’ 진행

박슬기 중소문화교육센터 전임강사 초청

“경각심 갖고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

전남일보는 26일 본사 승정문화관에서 본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을 진행했다.

건전하고 안전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박슬기 중소문화교육센터 전임강사를 초청해 이뤄졌다.

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산업안전 보건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성희롱 예방교육에서는 사례를 통한 성희롱의 이해,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2차 피해 방지 방안 등에 대한 교육이 실시됐다.

박 강사는 “성희롱이 발생하면 누구든지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회사도 지체없이 조사에 나서야 한다”면서 “성인지



박슬기 중소문화교육센터 전임강사가 26일 전남일보 지하1층 승정문화관에서 전남일보 임직원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감수성에 대해서도 구성원들 각자가 테스트를 통해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1년에 한 번씩은 법정 의무 교육

을 꼭 받아야 한다”며 “오늘 교육받은 내용을 다시 한번 각인하고 경각심을 갖고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승우 기자

‘지속가능한 녹지, 자연환경 복원 위한 세미나’ 성료

호남환경조경단체연합회 개최

조경의 미래 방향 모색하는 자리
김경섭 회장 “호남, 전국적 모델로”

(사)호남환경조경단체연합회(회장 김경섭)가 주최한 ‘제1회 지속가능한 녹지, 자연환경 복원을 위한 세미나’가 26일 광주광역시 시립미술관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기후환경과 도시화 시대 속에서 조경의 공공성과 생태복원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지속가능한 조경의 미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는 조경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학계 연구자, 산업 종사자 및 일반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열띤 분위기 속에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조경을 학술적 차원을 넘어 정책·산업·실무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인 논의가 이뤄져 현장감 있는 해법이 제시됐다는 평가다.

세미나에서는 △국내외 동향에 따른 자연환경 복원 산업 현황(조근영 남해종합개발(주) 팀장·이학박사) △수목 병해충 진단과 처방(박화식 (유)탑나무병원 원



(사)호남환경조경단체연합회(회장 김경섭)가 주최한 ‘제1회 지속가능한 녹지, 자연환경 복원을 위한 세미나’가 26일 광주광역시 시립미술관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호남환경조경단체연합회 제공

장·농학박사), △유럽 정원·녹지의 지속가능성(서정완 본시구도 이사·명지대 겸임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의 발표가 진행됐으며, 심층 토론을 통해 조경의 실질적 대안을 찾고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됐다.

김경섭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세미나는 기후위기 대응과 자연 생태 복원의 중심축으로서 호남 조경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출발점”이라며 “호남이 환경·조경 분야에서 전국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연합회 차원의 실행 전략을 마련하겠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 앞서 연합회는 (사)한국도시정원시민연합회(대표 강애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정원·녹지·조경 관련 정책 연구 및 개발, 산·관·학 협력 사업, 정보 교류와 유대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전 신청을 통해 일반 시민에게도 개방되어, 조경의 공공성과 소통 가능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행사로 평가받았다. 특히 전문가와 시민, 행정과 현장이 함께한 점에서 단순한 학술세미나를 넘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이 주최 측의 설명이다.

조진용 기자

광주경찰청 기동순찰대, 대형 교통사고 예방 홍보

광주경찰청 기동순찰대 1팀은 지난 25일 화물차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공단 주변에서 광주광산경찰서, 광산구청, 화물협회,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지역사회 공동체 중심 홍보활동을 펼쳤다.(사진)

기동순찰대는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는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초래하는 대

형 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선제적 예방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1팀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안내문 배부 등 예방 활동에 힘쓰고 있다.

기동순찰대는 이날 도로 포트홀을 점검하고, 장마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포트홀 등을 발견하면 112, 종합건설본



부 도로관리팀(062-613-6796)에 신고해 줄 것도 당부했다.

정유철 기자

한국전력공사, ‘사랑의 에너지 나눔 사업’에 성금 2억원

에너지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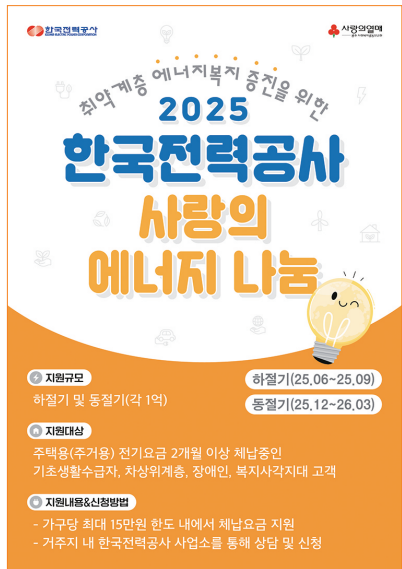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광주사랑의열매)는 한국전력공사가 저소득 에너지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을 위해 ‘사랑의 에너지 나눔 사업’에 성금 2억원을 기탁했다고 26일 밝혔다. (포스터)

‘사랑의 에너지 나눔’ 사업은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2003년부터 여름과 겨울철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지원을 목적으로 꾸준히 진행해 오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이다.

기탁된 성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전국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지원금은 주택용 전기요금을 2개월 이상 체납한 주택용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5만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올해 6월부터 2026년 3월까지 하절기와 동절기를 구분해 진행된다.

한국전력은 “‘사랑의 에너지 나눔’ 사업을 통해 혹서기와 혹한기 취약계층 가구에 미납 전기요금 지원으로 따뜻한 관심과 온정을 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분야 전문성과 전력



사업의 특성을 살려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철홍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은 “이번 기탁을 통해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한국전력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 기본권이 보장되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승우 기자



전라남도 새마을해외봉사단 발대식

전라남도새마을회(회장 양재원)는 지난 25일 순천시새마을회 회의실에서 ‘2025 캄보디아 새마을 해외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발대식에는 전남도내 시군 회장단, 참가 대학생 및 청년 봉사단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국제개발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캄보디아 봉사단은 오는 30일부터 캄보디아 간달주 카오크사치툰리마을 일원에서 소득지원사업, 유치원 환경개선(벽화, 환경판, 모빌 제작), 보건위생 교육, 문화교류 행사 등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활동은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을 실천하며 현지 주민과의 상생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양재원 전남도새마을회장은 “해외봉사단이 단순한 일회성 봉사에 그치지 않고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을 위해 3개 년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캄보디아 주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와 희망을 심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지속가능한 글로벌 새마을운동의 확산과 지구촌 이웃과의 연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양배 기자

인사

광주시 ◇전보△시민안전실장 김준영 △문화체육실장 전은옥 △정책기획관 윤창모 △도시공간국장 박금하

전화 (062)510-0412
e-메일 edit@jinilbo.com

본란은 애독자를 위한 무료서비스란입니다.
(보낼곳)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전남일보 5층

전일 게시판

분들과 가족을 위한 무료상담 및 교육실시 (062)526-3370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 주치의 운영=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062)413-1195

알림

▽광주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알코올·인터넷·도박·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